

제10강: 프랑스 바로크[1600~1700] 시대의 건축가

◆ 1교시: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건축 1

▲ 비토네의 유형 개념

지난 시간에 비토네를 보았었죠. 그림 706, 709를 보면 이전 시대보다 기교적이고 장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후기 바로크가 점점 더 장식적이 되어가고 로코코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난 극도의 분화현상이죠.

비토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너무 장식적이었다고들 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18세기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신고전주의가 나오는 시기죠. 그러므로 비토네는 철지난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죠.

최근에 와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장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독자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바로크를 대표한 앞의 두 거장 구아리니와 주바라가 외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현지인 출신인 비토네는 구아리니와 주바라의 건물을 어려서부터 보고 컸다는 겁니다.

상당히 친숙하게 체화된 상태에서 두 거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비토네는 처음으로 유형 개념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건축에서 유형이란 유용한 개념이자 디자인 방법론이자 설계기법이죠.

테라이나 등의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유형 개념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700, 710이 유형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어떤 공통적인 기본법칙을 뽑아내 그것의 변형을 통해 개별적 특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형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비토네는 기하 파로라마라는 개념으로 유형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10 같은 것을 보면 주제 변주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단순히 형태만 갖고 유형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죠. 공간개념이나 축조성, 구축성 등의 개념과 같이 건축적으로 정밀하게 구현해 내야만 유형 개념이 완성되는 겁니다.

종이에 스케치만 한다고 유형이 되는 게 아니죠. 비토네는 건물 골격은 평면과 동이의 두 방향에서 자유로운 실험을 합니다. 평면에서는 기하조작, 구조와 장식을 분리하고 이중 골격을 더하고 돔에서는 구아리니의 복합 돔을 받아들여 다양화하는 겁니다.

형태학, 유형학 등이 중요한 설계기법 중의 하나지요. 성모 방문 예배당인데요. 평면이 반 정도 잘려 있습니다. 큰 육각형이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예배당이 돌아가면서 에워싸는 구성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큰 육각형 안에 다시 별이 들어가죠. 두 번째 윤곽이죠. 세 번째는 이 전체를 바깥에서 감싸는 외벽이죠. 즉 공간 구성이 세 겹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옆에 단면도를 보면 돔은 rib network이지요. 그것이 실은 평면의 육각형이나 별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공간구성에서 평면 윤곽이나 실내의 전체적인 공간의 구조골격과 하나로 일치되는 겁니다.

607처럼 기하만 하나 조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축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아래의 첫 번째 윤곽에 일치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실내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바깥에서 감싸는 돔이 3중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구조, 공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일체가 되면서 709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비토네도 다작을 한 건축가였는데요. 규모가 작은 교회를 토리노와 그 인근에 20개 이상 설계했습니다. 실제 건물들에 이러한 다양한 평면들이 구현됩니다. 그 과정은 지금 본 것과 같은 단계적 과정을 거칩니다.

평면윤곽, 공간, 구조골격 등이 하나로 일치가 됨으로써 유형이 완성되는 것이죠. 고전주의 요소를 기하 단위로 추상화시킨 사람들도 있죠. 유형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형태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상징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유형은 상당히 적용 가능성이 많아서 재밌는 설계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을 실제의 건축물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한 시행착오와 시험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일단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비토네가 그런 예를 보여주는 바로크 말기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그 다음은 프랑스 바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바로크는 17세기의 이탈리아 바로크와 시기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고전주의를 구사하다 보면 이탈리아에 종속되기 쉬운데요. 이때 이미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

장 강력한 통일국가의 절대왕정을 이루죠. 건축적으로 예술적으로 보아도 이탈리아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이죠.

낭트 칙령으로 안정을 되찾죠. 16세기 후반부는 종교전쟁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다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앙리 4세가 먼저 등장을 하죠. 앙리 4세부터 루이 14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파리 재건을 실시하면서 건축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앙리 4세, 루이 13세 거치면서 프랑스의 절대왕정이 절대적인 권력의 과시, 안정, 프랑스의 국가적 정체성,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이전 16세기 프랑스 건축은 르네상스로서 이탈리아 건축에 강하게 귀속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때 오면 프랑스만의 건축양식이 무엇이라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17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양식, 교회를 대표하는 종교양식과 왕궁을 대표하는 세속양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교회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다시 보수 가톨릭으로 회귀를 합니다. 프랑스도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신교가 유행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전국적으로는 다시 가톨릭으로 정리가 되며 보수적인 현상을 나타내죠.

교회에서는 베르니니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정통 고전주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왕궁은 프랑스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죠. 때문에 프랑스의 지역전통을 추구하는 대별성을 보이게 됩니다.

프랑스의 16세기 르네상스에 나타났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프랑스 전통의 혼합문제. 그것을 갖고 한 세기를 고민하고 그 결과 17세기에 프랑스 전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궁을 통해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직 이탈리아의 정통 고전주의를 많이 차용합니다. 개별 어휘들은 정통 고전주의를 차용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수직성이죠. 이것은 이탈리아에는 없는 프랑스만의 고딕전통이죠.

프랑스의 국가 전통을 섞어 내는 경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7,18세기 바로크 건축은 이 두 사이에서 대립, 조화, 통합이 중요해지죠. 쉽게 얘기해서 국제주의 양식과 지역주의 양식 간의 이상적인 통합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통합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하며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가 기능 유형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왕궁과 호텔로 상징됩니다.

호텔은 원래 프랑스 내부에 지어지는 상류층의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가면 숙박업소가 되지만 원래는 주거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왕궁에 가세를 하면서 17세기

에 파리에 대형 호텔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건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진 찍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 종교전쟁이 끝나고 신교와 구교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가톨릭이 국교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면서 보로메오의 지침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수주의가 작용하게 되죠.

반면 호텔, 왕궁, 기타 공공건축은 그렇지 않죠. 절대 왕정시기에 루이 14세나 나폴레옹 등의 사람들이 폭력도 많이 휘둘렀지만 근대국가의 기틀을 닦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전쟁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 내부로 보면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나 병원을 많이 세우죠. 나폴레옹 3세 때는 파리의 지하철 같은 인프라들이 생깁니다.

레미제라블 보면 장발장이 파리 하수도로 도망갑니다. 하수도 천장 높이가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뛰어서 도망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그만큼 공공시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관공서,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 기능 유형이 다양화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유형학적 분류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크 때 한번 다양화되고 계몽주의 때 또 한 번 19세기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맞는 건축기법이나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능에 맞는 유형이나 양식을 찾는 작업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전통이 강하게 가미된 프랑스만의 바로크 건축이 성숙이 되는 겁니다.

중앙 출입구와 축동을 동시에 강조하는 오분법 구성, 이런 것이 프랑스의 지역전통이고 지붕이 중요합니다. 힙 루프라는 것, 또 그리고 도머도 있습니다.

힙 루프 같은 경우는 그림 742의 지붕을 보면 있지요. 힙처럼 생겼어요. 예를 들어 747의 돔은 이탈리아식 둥근 지붕인데 732는 그것과는 다르죠. 737이 표준 고전주의라면 732와 같은 둥근 지붕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지붕양식입니다. 나라마다 전통적인 지붕 양식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힙 루프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황소는 같은 동그란 창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도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고전주의에는 없는 프랑스만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지요. dormer

지붕은 건물에서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모더니즘에 오게 되면 평지붕 논쟁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체로 서양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이 평지붕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평지붕이 국제적인 20세기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붕이 너무 새서 소송이 걸렸다는 겁니다. 건축사에 등장하는 양식사로서는 어쩔지 몰라도 실제로는 최악의 집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지붕의 형태가 전통성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표준 고전주의는 대체로 평지붕, 박스형입니다. 이것이 영불독에 오게 되면 오분법에 힘 루프나 경사지붕이 등장하지요.

산세의 영향도 받고 강수량이나 적설량의 영향도 받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집의 경사도가 높아집니다. 평지붕이면 큰일나지요. 눈 때문에 내려앉습니다. 비가 많은 곳에서도 방수 문제 때문에 평지붕은 위험합니다. 지붕은 지역의 전통이 잘 드러나는 건축 형태 중의 하나란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이탈리아의 정통 고전주의, 세속건물에서는 프랑스의 지역양식이 공존하게 됩니다. 절대왕정은 또한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카데미를 최초로 설립한 것은 예전에 본 것처럼 로마였죠.

▲ 프랑스의 아카데미 제도

그것을 보고 루이 14세가 프랑스에도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왕립 미술 아카데미, 왕립 건축 아카데미. 이 두 개를 세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아카데미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미술과 건축을 지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술교육기관이지만 이것을 확장하면 학교가 아니라 왕실의 건축행위를 총괄하는 행정시스템까지 포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르가 설립되면서 교육기능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카데미에서의 에콜 시스템은 프랑스의 전통 집중체제가 건축에 잘 드러난 것이죠. 국가에서 교육은 공짜로 시켜주고 그 후에도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은 이 아카데미 출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신 국가가 왕실이 요구하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국가주의나 절대 권력을 위한 봉사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이 모두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인상주의의 모더니즘 화풍들이 이 아카데미에 반기를 들면서 근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국가나 왕실을 찬양하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화풍에서도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제는 전쟁, 국가신화, 왕의 승리, 승전 등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웅장하게 표현하는 기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법을 스튜디오에서 거의 암기하듯이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것을 예술적 거짓말로 본 거죠. 빛도 자연광과는 상관없이 실내 스튜디오에서 암기와 반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술입시 교육입니다.

미술학원에서 소묘 데생을 거의 암기해서 하죠.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높은 단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일에서는 가장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교과서적 법칙이 강제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건축에서는 프랑수아 블롱델(F. Blondel)이라는 사람이 오더와 비례라는 정통 고전주의의 규범들을 갖고 아카데미를 이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아카데미는 오더와 비례를 통해서 건축법칙을 암기적으로 가르칩니다. 나중에 졸업 작품을 만들면 그중에서 상을 줍니다. 프리드롬((Prix de Rome), 로마에 국립 아카데미의 분원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5년 간 체류하면서 이탈리아 본토의 고전주의를 연구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등상이 그랑프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에서 5년 간 체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까 천재성을 가지면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건축가들이 아카데미를 거쳐 상을 받고 로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에 맞는 국가적인 양식을 재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이 프랑스 바로크의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은 아직도 저런 전통이 강합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로버트 벤츄리 같은 사람도 상을 타서 로마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리더가 되어 이끄는 건축이 프랑스 바로크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겁니다.

◆ 2교시: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건축 2

▲ 드 보로스의 건축 양식

실제적인 건축가들을 보면 프랑스 건축을 5명의 건축가가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름은 도판 캡션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드 보로스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프랑스 바로크 건축의 경향, 세속건물에서는 프랑스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교회에서는 이탈리아 고전주의를 이용한 수직상의 표현. 이런 대별성이 드 보로스에게서 나타납니다.

룩상부르크 궁전은 프랑스의 지역적인 전통이 나타납니다. 5분법과 경사지붕이 나오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프랑스 르네상스에 나타났던 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16세기 보다 정리가 잘 된 겁니다.

16세기는 중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장식이 절제되고 층 구분이 명확한 등 이탈리아 고전주의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프랑스의 지역적 전통을 지키되 이탈리아 고전주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림 729를 보면 오더를 이용했죠, 마데르노의 바로크 기법이죠. 베르니니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바로크 기법인데 차이점은 3층으로 올린 거죠.

1층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위층으로 갈수록 기둥이 여성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축조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튼튼한 이미지의 기둥이 여성적인 이미지의 기둥을 받쳐주는 것이죠.

이것은 고딕의 수직적 분위기를 고전 오더의 중첩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드 보로스에서부터 이미 전체적인 방향이 잡힌 겁니다.

▲ 르 메르시에의 건축 양식

그 다음이 르 메르시에입니다. 그의 대표작도 마찬가지로 왕궁과 교회입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죠. 왕궁은 그 유명한 루브르입니다. 루브르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르 네상스 때 한 번 나왔었지요.

루브르는 상당히 여러 기간을 걸쳐 중축이 되는데, 바로크 중축을 르 메르시에가 했다는 겁니다. 세속기능에 나타난 프랑스 전통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28보다 장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룩상부르크는 돌 표면의 거친 정도에 차이를 주어서 프랑스의 지역 전통을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다시 장식이 나오는 겁니다. 양면적으로 보완이 되어가는 겁니다. 프랑스 전통도 보강되고 이탈리아의 표준 고전주의도 보강이 되는 겁니다.

오더의 사용이 비교적 정확해 졌습니다. 그러나 장식도 자잘하게 늘어나고 신전 파사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에 나타난 고민이 강화되는 양면적 상황으로 나

타납니다.

소로본느 대학 교회가 그림 737입니다. 조그만 광장이 있습니다. 738이 대학 앞마당의 파사드입니다. 737은 앞에 얘기한 드 보로스가 추구했던 수직성이 나타납니다. 드 보로스는 3층의 수직층 쌓기였다면 르 메르시에는 2층 파사드에 돔을 더합니다.

신전 파사드로 끝나기도 하고 돔으로 마감하게 되면 파사드를 쓰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둘을 섞은 것이죠. 수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신전 파사드에서는 표준 고전주의, 마데르노의 오더 시스템을 이용한 바로크 표준기법이고요.

돔을 더해서 수직성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가로쪽 파사드이기 때문에 17세기 프랑스 가톨릭의 보수적인 입장을 잘 드러냅니다. 반면 대학 쪽에서 본 것을 보면 좀 더 장식화 경향이 보이죠. 수직성도 노골적으로 보이고요.

737은 고전주의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표준적인 모습이었다면 738은 수직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랑스의 지역전통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처리기법도 가로 쪽은 마데르노의 표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738은 이탈리아 족보에 없는 구성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적인 신전 파사드입니다. 그 위에 아치가 있고 사각형 윤곽이 있고 그 위에 드럼이 있고 돔이 있죠.

상당히 복수 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이탈리아에는 없는 르 메르시에만의 독창적인 경향이라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로 인해 프랑스의 국민 정서를 좀 더 많이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죠. 똑같은 높이인데도 건축 구성을 달리 함으로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 프랑수아 망사르의 건축 양식

그 다음에 망사르로 가겠습니다. 프랑수아 망사르로 오게 되면 프랑스 바로크 건축이 1차적인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망사르는 특히 프랑스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했던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의 정체성은 건축가의 개인적인 창작성을 풀어보려는 시도가 보이죠. 왕실의 아카데미와 같은 권력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왕실보다는 일반 건축주가 많았습니다.

호텔 등에서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가장 프랑스적인 것을 찾는 데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돔을 만들긴 했지만 프랑스의 루프를 이용하죠. 실내에서 바라보는 것과 외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목조로 골격을 짜서 경사를 유지했고 실내는 이탈리

아 돔과는 다른 프랑스 돔으로 처리했습니다.

망사르는 프랑스적인 것을 찾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망사르 루프(mansard roof)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흰 루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 여기에 경사를 두 번 주는 겁니다.

744 보면 나와 있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명칭을 만들 정도로 프랑스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종합해 보면 프랑스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왕실과 결탁을 해야 하는데요.

왕실이 세속 권력 건물에 프랑스 전통을 많이 썼으니깐요. 교회는 이탈리아 고전주의를 쓰고요. 그러나 왕실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성격 자체가 비타협적이고 적도 많았지요.

재주도 많았고 기존에 내려오던 관행이나 권력과 많이 맞선 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745, 746입니다. 746을 보면 이전 생 제르베나 소르본느 교회에는 없던 독특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의 기법이 나타났다면 여기서는 드럼과 돔만으로 건물 본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전 파사드나 오더가 거의 쓰이지 않고 있고요. 드럼도 buttress가 받치고 있습니다.

드럼을 이탈리아 표준 고전주의로 처리한다면 미켈란젤로 정도일 텐데 그것을 드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전통을 가미한 것이죠. 지붕도 그렇습니다. 보통 드럼을 쓰되 신전 파사드가 몸통을 이루고 그 위에 이탈리아식 드럼을 올리는 게 고전주의라면 그것을 깨는 것을 시도했죠. 프랑스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평면도도 보면 중앙 집중형 건물이 그리크로스 건물인데 반해서 745는 아무 족보에도 없는 그만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프랑스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표준형으로 돌아간 것이 740에서 748입니다. 이것은 여러 건축가가 걸쳐 만든 것이라 완전히 망사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면서 어디까지 그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직도 논쟁이 있지요. 이 건물 자체는 아주 중요한 건물인데 반해 양식사조에 대한 건축가들의 저작권 문제는 프랑스 사가들 사이에 논쟁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태리 바로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망사르가 성모 마리아 방문교회를 통해서 프랑스만의 건축을 어느 정도 완성시켰고 동시에 호텔로 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파리가 확장을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파리 재개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절대왕정이 등장하면서 파리가 서유럽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서 상류층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지방영주로 있던 권력자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영지를 지키면서 왕실의 직속령을 따르며 정치적 거리를 하거나 봉종을 통해서 영토를 지키는 것이 프랑스의 국가 체계의 기본 운영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왕정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파리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파리에 호텔을 하나씩 짓게 되며 붐을 이루게 됩니다. 법복 귀족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깁니다.

귀족, 부르주아, 신흥관료로 구성되는 법복 귀족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근거지를 위한 호텔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시내의 골격이 있으니 신시가지지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 많이 지어진 지역이 Il saint-louis입니다. 그 지역에 대형 호텔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만 하루 돌아도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왕실과는 다른 차원으로 초기 근대 프랑스의 국가적 자존심을 형성했던 계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방 권력자들이었으므로 국제주의에 대한 인식보다는 프랑스의 지역 정서를 건축에 많이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 아르두앵 망사르의 건축 양식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람은 아르두앵 망사르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수아 망사르의 손자 조카입니다. 프랑수아 망사르를 존경해서 그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사실은 외가쪽이므로 망사르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에 망사르가 된 겁니다. 서양의 긴 이름은 이 가문 저 가문에서 따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는 외할아버지를 존경했고 교육을 받았고 이름을 빌렸습니다. 망사르가 기록을 잘 못 남겼고 적도 많았었는데 그의 사후에 도면과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아르두앵 망사르입니다.

그림 770과 771을 보시죠. 왼쪽이 프랑수아 오른쪽이 아르두앵입니다. 영향을 받은 내용들

을 보여주고 있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아르두앵 망사르만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르두앵 망사르는 루이 14세의 수석 건축가로 활동합니다. 절대왕정에 맞는 프랑스의 국가 양식을 창출해 낸 건축가입니다. 왕실에서 발주하는 중요한 건물을 많이 설계합니다.

대표적인 것일 베르사이유입니다. 베르사유는 그 전부터 건설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망사르 때 완성이 됩니다. 왕베르사유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베르사유 자체가 도시 이름입니다. 귀퉁이에 왕궁이 있는 겁니다. 도시는 물론 다른 건물도 많습니다. 그 모습이 그림 776, 777입니다. 777 같은 경우 앞에 얘기한 세속 기능에 나타난 16세기 르네상스의 고민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크의 그랜드 매너와 합쳐지면서 쌍기둥이라든가 장식 등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거울방이 특히 유명하죠. 대연회실이죠. 거울이 많아서 그렇게 불리죠. 화려한 실내장식을 이루고 있고 각 방들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각 방이 미술관입니다. 미술에서의 아카데미즘이 꼭 채워져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와 왕의 승리를 다룬 그림들이지요. 이런 것들로 꼭 차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 돌면 미술관 하나 본 것보다 그림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당대의 내노라 하는 화가들이 저기에 동원되어서 아카데미즘 그림들을 마구 그려 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망사르의 작품 중에서 트리아논이 중요합니다. 왕궁 본체가 있고 옆에 보면 트리아논 섹션이 있습니다. 두 건물 중 하나는 18세기 건물이고 하나는 그가 설계했습니다.

쌍기둥이라든가 수평확장이 보이죠. 베르사유도 연속구성을 통해서 수평방향으로 확장합니다. 그 근거는 프랑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찬양하는 그림들이죠.

특히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정복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경 중에서 아주 기하학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연대 본관 앞에 가면 있는 형식의 조경입니다.

반면 베르사유의 왕궁 채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망사르의 주요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딕 양식을 많이 빌려와서 씁니다. 외관부터가 buttress 등이 보이죠. 고전주의 어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고딕에 수직 느낌이죠. 783을 보면 고딕의 특징, 구조 합리성이 보입니다. 독립 원형 기둥만으로 실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꺼운 벽채만으로 실내 구성을 하던 바

로크 교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관은 수직성으로 실내는 구조 합리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평확장과 수직확장이 하나로 합쳐진 마지막 걸작이 786에서 791까지입니다. 평면을 보면 왼쪽에 단순한 바실리카 섹션이 있고 성소에는 중앙 집중형이 있는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 구조입니다.

수평 확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리의 가로 구조가 전형적인 방사선 구조죠. 그래서 파리 거리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프랑스 전체를 보아도 파리를 보아도 방사선 구조가 강합니다.

수도에 대한 집중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나라가 길기 때문에 방사선 구조가 생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라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 전체가 파리로 집중해 가며 파리 안에서도 그렇지요.

성소 쪽을 보면 기존의 그리크로스의 중앙 집중형과 다르죠. 기존의 것이 십자축 구조로 끝났다면 이것을 45도 사선 방향으로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방사선 구조를 갖추죠. 네이브 쪽에서 강한 선형에 의한 수평 확장, 성소에서 방사선 구조에 의한 수평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직 중첩에 의한 수직 확장.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돔이 3중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돔의 껍질을 위로 쌓았다는 겁니다. 수직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것들이 전부 프랑스 절대권력의 확장인 것이죠. 유럽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프랑스의 절대권력이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프랑스 바로크를 마치고 다음은 영국 바로크로 넘어갑니다.